

16 송하음다도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손끝으로 완성한 조선 특유의 미감

조선 후기(약 1700년~약 1850년)는 문화와 예술이 성장해 꽃을 피우던 시기이다. 회화 역시 이전 시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화적(畫籍) 및 화보(畫譜)를 통해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며 조선 특유의 미감을 발현하게 된다. 심

물은 언덕에 덕하니 걸터앉아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있는데, 세속의 옷을 벗어버린 듯한 그의 풍골에서 <장자> '전자방(田子方)'의 해의반박(解衣般礴)이 연상된다. 그림의 오른쪽 붉게 짙힌 인장아래에는 뜨거운 화로가 놓여있어 앞에 앉은 다동이 허리를



심사정, '송하음다도', 지본수묵담채, 28.3x55cm, 호암미술관 소장.

사정(沈師正, 1707~1769)은 이 시기 남종문인화의 정착과 유행에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인물, 화훼, 영모 등 다양한 화목에 두루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수묵 혹은 엷은 채색을 사용한 은화한 느낌의 관념 산수화를 잘 그렸다.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심사정의 '송하음다도(松下散茶圖)'는 깊은 산정언덕의 소나무 아래서 두 인물이 차를 마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

높은 산을 뒤로 물러 공간을 확장시키니 시야가 넓어져 막힘없이 시원하다. 담묵으로 형태를 표현한 산의 모습과는 달리 중앙에 솟아 오른 소나무는 과감하고 강렬한 선으로 이뤄져 대조를 이룬다. 노송의 기개가 아름다움을 이토록 잘 표현한 그림이 또 있을까. 세월의 풍상이 배어있는 노송의 밑동에는 어느덧 웅한 구멍이 뚫렸다. 그러나 척박한 바위 언덕을 움켜쥔 소나무의 뿌리는 밖으로 굳센 모습을 드러내고 뒤를리며 솟아오른 줄기에서는 고고한 기상이 느껴진다. 그 기세가 좌우로 뻗어 가지는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림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형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솟았은 여전히 푸른빛을 발하고 있으니 은은한 솔향은 여전할 것이다. 이 노송에 의지하듯 곁에 앉아 차를 마시는 한 인물이 있다. 다완을 들어 차를 마시자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소매는 아래로 드리워져 소나무의 밑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의적(寫意的) 표현은 마치 소나무와 인간이 합일의 상태에 이른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소나무의 기상이 고고한 현인의 내면과 섭동(攝動)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마주 앉은 인

숙여가며 불길을 조절하고 있다.

고졸하면서도 밀도 있는 시정(時情)이 담긴 이 작품은 사실 놀랄게도 손가락으로 그려진 것이다. 오른쪽 여백에는 지두법(指頭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 이 그림이 손가락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심사정은 지두법을 적극 수용해 작품으로 남긴 최초의 화가로 여러 그림에 지두화법을 사용해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지두화법의 생략적이고 속도감 있는 필치는 문인화의 의취를 드러내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대개 남종문인화를 떠올리면 고무한 전통을 답습하거나 한국적인 정서가 부족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심사정의 '송하음다도'는 파격적인 기법을 통해 고매한 문인정신과 맑고 시원한 한국의 조형적 미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림에서 눈에 띄지 않는 화면의 왼쪽에는 석간수(石間水)가 조용히 흐르고 있다. 요란하지 않지만 굽이쳐 흐르는 물살에서는 맑고 찬 기운이 전해진다. 차(茶)의 품을 이루는 물은 탕법(湯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강조라도 하듯이 심사정은 손톱 끝으로 뚜렷하고 분명한 물줄기를 표현했다. 물에 따라 차 맛 또한 변화무쌍해지니 좋은 물을 찾아 차 모임을 여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노송의 솔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날, 차와 물의 신령스러운 조화가 담긴 다완을 기울이니 어느덧 거드랑이 사이에서 바람 일어 온몸이 가벼워지는 듯하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3 수덕사 조인선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을이 끝난 모든 곳에 흠박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룻밤 묵으로 갠 수덕사도 하얗게 눈이 덮여 있었다. 산사는 고요했고 부처님 전연 향냄새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6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수덕사 조인선원(祖印禪院). 스님 한 분이 죽문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다. 숲에선 소리도 없이 내리던 눈송이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나뭇가지 위에 앉았던 산새는 다른 숲으로 날아갔다.

스님의 지나간 비질 위로 다시 하얀 눈이 쌓였고, 스님은 쌓인 눈을 다시 쓸었다. 산사는 여전히 고요했고, 지나간 비질 위로 눈은 또 내렸다. 스님은 눈을 쓸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옛 관화의 세계

관음보살이 여인으로 나타난다 관음현화(觀音顯化)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관세음보살님이 중국의 섬주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화현해, 교화하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관각한 장면이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아바라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이며, 중국에서 뜻으로 옮겨 광세음(光世音)·관세음(觀世音)·관자재(觀自在) 등으로 썼는데 줄여서 관음(觀音)이라 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인도의 남쪽에 있는 보타라가산(補陀落迦山, Potalaka)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손에는 버드나무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기도 하며, 중생구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천수천안(千手千眼)의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이 삽화에서도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관화의 상단 윗부분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화현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혼인하려하자,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외우면 시집가겠다고 했으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다시 금강경으로 외우라고 하자,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자 <법화경> 일곱 권을 내려주면서 외우게 했더니 마치 한 사람이 이 경을 통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관화의 하단 부분은 혼인의 예를 올린 관음보살은 합방하려는 마씨에게 내 몸이 좋지 않으니 편안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자고 한 후 손님이 흠어지지 않은 사이에 관음보살의 화현인 여인은 이미 죽어 육체가 허물어지고 썩어있는 모습이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로 뼈를 건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너희들의 장애가 걸린 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집짓 방편을 드리우셔서 너희들의 모습으로 화현을 따르니 이를 잘 생각해 이것을 인연으로 고해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는 공중을 날라 그곳에서 떠났다. 이때부터 섬주 지방에서 관세음보살을 받드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보살님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화현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다. 이를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를 뿐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학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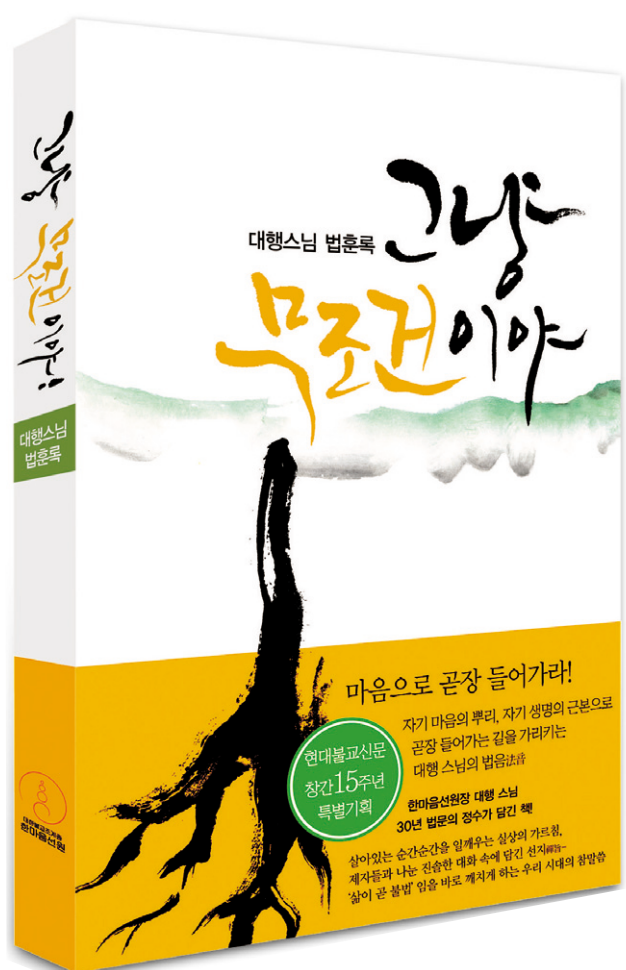
詩가 있는 도량

대머리 박홍조씨와 화투치기

부챗살처럼 펼쳐든 패를 읽는다
어이쿠, 박홍조씨 오셨네
엄마가 매조를 내리친다, 찰씩
경로당 화투 치나?
엄마의 재촉에
에라, 어차피 효도화투인데
깍질을 남기고 알맹이를 가져온다
내가 패를 미처 뜨기도 전에 엄마는
흑짜리를 친다
따닥 새들이 찰씩 붙는다
씩솔이한 화투판
아버지 보우하사 엄마 날이네
판이 끝날 때마다 / 똥이 왔다 간다
엄마 앞에는 파란 돈이 수북하고
팔순 엄마 얼굴에 그득하게
퍼지는 홍조 사이로 / 팔공산이 떴다
깍질만 먹고 알맹이를 남긴 엄마
화투패가 갖혀지며
네 엄마 저 세상 갈 때
좋은 화투목 열 개쯤 / 판에 넣어주려던 박홍조씨
번쩍, 광을 내며 / 판에 들어온다
-박미산, <문학나무> 겨울호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관음현화(觀音顯化)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公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삼 |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